

순천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위 구성

미술인, 전·현 시의원 등 간담회
문화도시 미술관 필요성 공감
시민제안 설치 조례 제정키로



순천지역 미술인과 시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행보에 사동을 걸었다.

순천지역 미술인과 전·현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순천문화재단 1층 소공연장에서 순천미술관건립추진위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이들은 순천시립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공식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추진위 구성 후 본격적으로 미술관 건립 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미술관 건립에 나선 한 미술인은 "순천시립미술관은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미뤄져 왔다"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질적 향상과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건립추진을 본격화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계·시민단체·학계 등 단체와 개인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미술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려 하며 준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은 "시립미술관 건립이

능성은 크고 시민적 토대도 좋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미술관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겠지만 연향들 '화이트 콘'을 공공성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이현재 시의원은 "도서관의 도시로 알려진 순천시가 문화거점도시 방향의 구체적 접근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립미술관 건립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시민 공감대 형성과정도 중요한데 예술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경수 순천예총 회장은 "건립추진위 구성이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추진위 구성 후 구체적인 진행 등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위수환 예총 사무국장은 "미술관에 맞게 작품보관 수집기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 자문위원인 박광호 전 순천시의회 의장은 "순천의 문화 환경이 좋은 편이지만 미술관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에 걸맞도록 미술관이 필요하고 그 근거로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미술관진흥법' 등을 통한 입법으로 시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0월 중순께 2차 간담회를 갖고 공식적인 '순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진위 구성과 함께 '순천시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를 만들고 시민제안에 의한 순천시의회 차원의 조례제정을 청원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 성료

156개 도시 온·오프라인 참석
'기후변화 대응 협력' 여수 선언문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도시 역할의 뜨거운 토론장이 됐던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가 성료했다.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이 행사는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51개국 156개 회원도시와 UN 기관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및 청소년 포럼으로 막이 오른 여수정상회의는 주한대사관 세션, 남해안 남중권 포럼 등 총 4개의 분과회의와 3개의 특별세션이 차례롭게 펼쳐지며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대행사 및 체험부스 운영 등 대면 프로그램은 전면 취소하고, 전 행사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여 해외 회원도시의 비대면 참여와 여수시민의 관심도를 높였다.

이날 폐회식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윤원태

UEA 사무총장은 정상회의의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2021 UEA 여수선언문' 등을 채택하고 '여수선언문'을 낭독했다. 여수선언문에는 "우리는 기후변화가 예측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현재 도시가 처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과 기후위기가 해결의 열쇠임을 인지하고 우리 후손에게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녹색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이번 정상회의의 세션에서 진행된 논의에 따라 6개 세부내용 지지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동서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좋은 선례가 될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해 협력을 공고히 하고, UEA 회원도시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중립(Net Zero) 0 정책 및 기후 행동 이행을 지방정부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에 랜드마크 생활복합시설 들어선다

웰니스 복합센터 'SOC 사업' 선정
4층 규모 시설 2024년까지 준공



구례군이 국무조정실에서 공모한 '2022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 10대 우수 사업에 '구례 웰니스 복합센터(조감도)'가 선정됐다.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13개의 생활 SOC 사업을 지자체 형편에 맞게 복합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구례군이 신청한 구례 웰니스 복합센터는 4층 건축물(연면적 약 7000㎡) 규모로, 수영장, 실내체육관,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다목적홀, 동아리방 등 체육·생활·문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해로 실의에 빠진 구례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시급한 점, 귀농·귀촌인과 다문화 가정 등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

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구가 적어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생활편의 시설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구례군 공직자 모두 코로나19와 수해로 지친 군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박지성 공설운동장 개보수 마무리

고흥군 생활체육의 중심지인 박지성 공설운동장(사진)이 새로운 모습으로 정비됐다.

고흥군은 박지성 공설운동장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준공된 고흥군 박지성 공설운동장은 축구 동호인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운동장 본부석 누수가 심하고 계단이 미끄러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또 공설운동장

내부 채력단련실은 천장과 벽면이 낡아 곰팡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은 이에 따라 국비 3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구조물 보강, 건물 내부 리모델링, 도색 및 광장 포장 등을 추진해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층고를 높여 개방감을 줬으며,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야간에도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했으며 건물 벽면 도색을 다시 했다. 광장 포장과 차선 도색으로 차량 이용 편의도 높였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사과에 새겨진 곡성군과 거창군의 23년 우정

1998년 자매결연 후 교류

농업경영인 대회·친선체육대회
'문자 사과' 주고 받으며 우애 다져



거창군이 보낸 '문자 사과'를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유근기 곡성군수. <곡성군 제공>

곡성군과 경남 거창군이 양 지자체의 유대를 상징하는 문구가 담긴 '문자 사과'를 주고받으며 우애를 다지고 있다.

곡성군은 최근 거창군으로부터 다양한 문구가 새겨진 사과를 선물 받았다.

거창군은 '함께해요 희망곡성', '세계장미축제', '섬진강기차마을', '대항강 출렁다리' 등 곡성군 대표 상징물과 글귀들을 특산물인 사과에 새겨 보냈다.

곡성군이 거창군과 특별한 우정을 이어온 것은 23년 전부터다. 1998년 10월 9일 자매결연을 한 이후 양 기관은 서로 활발하게 교류해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마다 '곡성·거창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열어 친목을 다졌다.

농업경영인 교류대회, 민간 친선체육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인연을 확대하고 있다.

수해나 폭설 피해 등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는 서로 복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문자 사과 교류는 거창군이 지난해 곡성군에서 발생한 섬진강 수해를 위로하기 위해 시작했다.

지난해 곡성군에서 유례없는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거창군은 낙심하고 있는 곡성군민을 위로하고자 다양한 수해 복구 지원과 함께 힘이 되는 문구를 사과에 새겨 전달했다.

곡성군은 거창군의 응원을 받아 용기를 내 수해 복구를 진행하고, 감사의 문구를 사과에 담아 거창군에 다시 전달했다.

곡성군은 10월 말께 다시 거창군에 문자 사과를 보내 화답할 예정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힘든 시기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응원해주는 거창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